서울大學校 師大論叢 第70集 (2006. 08. 31)

읽기 부진학생의 읽기 과정에 관한 연구

김 유 미*

〈 목 차 〉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읽기 부진학생의 읽기 과정에 나타난 특성
Ⅳ. 읽기 부진학생 지도 방안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 문헌 * 영문 초록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수-학습이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목표, 내용,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실제 국어 교육 특히 읽기 교육에서는 제반 여건의 미비로 인해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수업이나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학생은 상위권 학생들보다는 하위권 학생들, 즉 읽기 부진학생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중학교 읽기 부진학생의 읽기 과정에 나타나는 특성을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읽기 부진학생들에게 적합한 지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부설여자중학교

현행 교육제도 하에서 한 학급 내 학생들의 수준차가 가장 심한 곳은 중학교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초등학교에서의 학습 결손이 누적된 상태에서 학생들이 각자의 수준에 따라 나눠지지 못한 채 수업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의 중학교 읽기 수업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가 '수준별'임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따라 활동을 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많고, 수업 역시 여러 가지 여건의 미비로 인해 수준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생들의 수준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학생들의 읽기 활동 산출물들을 분석해 본 결과 상위권 학생들과 하위권 학생들 간의 능력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읽기 부진학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읽기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중 읽기 능력의 발달이 해당 학년의 성취 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학생들(읽기 부진학생)과 읽기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읽기 우수학생)의 읽기 과정을 관찰하고 비교함으로써 같은 연령의 다른 학생들에 비해 읽기 부진학생들이 읽기 과정에서 어떠한 곤란을 겪으며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읽기 부진학생들의 읽기 과정상에 나타나는 특성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읽기 부진학생을 위한 지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교 읽기 부진학생의 읽기 과정으로, 여기서 말하는 읽기는 글과 독자가 만나는 과정에서 독자가 자신의 배경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를 재구성하는 행위이며, 사고적인 면, 사회적인 면, 언어적인 면 등이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도의 역동적인 인지적 행위(국어교육학 사전, 1999)를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읽기 과정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 관찰하기 어려워 지금까지 간접적인 방법들을 통해 독자의 사고 과정을 추측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구술법을 통하여 읽기 부진학생들로 하여금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게 하거나 중심 생각 찾기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과제 해결 과정을 구술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사고 과정과 양상을 확인하였다.

읽기의 과정을 말로 보고하는 방법을 통해 얻어진 자료가 읽기 과정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지적될 수 있지만, 읽기 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어떠한 방법도 완전하지 않음을 생각할 때 사고구술법은 상대적으로 읽기의 과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인정받고 있다(장진호,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읽기 부진학생들의 읽기 과정에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읽기 부진학생들과 읽기 우수학생들에게 미리 준비한 텍스트를 제시하여 그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하였고, 그것을 녹음·전사하여 그 자료를 분석하였다.[1)]

연구의 진행 과정은 <표1>과 같다.

<표1> 연구 진행 과정

단계	연구 내용	구체적인 활동
1단계	예비 검사	사고구술 수행상의 유의점 확인
2단계	자료 수집을 위한 준비	실험 참가 학생 선정, 텍스트 선정
3단계	사고구술 자료 수집	학습자의 사고구술 연습 및 실제 사고구술 과정 녹음
4단계	사고구술 자료 분석	사고구술 자료 분석을 통한 읽기 과정 분석
5단계	읽기 부진학생의 읽기 과정에 나타나는 특성 추출	읽기 부진학생과 읽기 우수학생의 사고구술 자료에 나타난 차이점을 중심으로 읽기 부진학생의 읽기 과정상의 특성 추출
6단계	추출된 특성을 기초로 지도 방안 모색	읽기 부진학생의 읽기 과정에 나타난 특성들을 기초로 이들에게 적합한 읽기 지도 방안 모색

Ⅱ. 이론적 배경

1. 읽기의 본질

읽기가 무엇인가의 문제, 즉 읽기의 본질을 밝히려는 연구와 논의는 읽기에 대한 연

1) 본 연구에서는 '읽기 부진학생'의 개념을 '읽기 영역에서 정상적인 학교 학습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행학습의 결손 등의 요인으로 인해 동년배의 읽기 발달 단계에 비하여 수락할 수 있을 만큼의 최저 학업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으로 규정하고, 서울시내 모 여자 중학교 2학년 260명 중 읽기 성적이 하위 10% 이내의 학생들 가운데 수학 성적과 국어 성적의 차이, 평소 읽기 과제 해결 양상 등을 고려하여 학생 10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이들이 나타내는 읽기 과정상의 곤란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읽기 능력이 우수한 학생 5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읽기 과정도 함께 분석하였다.

구 초기부터 있어 왔으며 심리학의 발전 과정에 따라 함께 발전하여 왔다. 읽기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읽기의 본질을 정리하면, 읽기 과정에서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은 문자 해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문자를 해독한 것은 다시 독자에게 돌아가면서 이 두 측면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독자는 새로운 개념을 구성하게 되고 구성된 것은 독자의 배경지식의 일부가 된다. 이렇게 볼 때, 읽기는 독자가 주어진 글에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읽기 과정을 좀더 단계적으로 설명하면, 글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초기의 처리는 단어에 대한 의미적 부호화이다. 단어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중다적(重多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단어가 전혀 다른 두 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중다적 의미를 갖지는 않더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뉘앙스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는 문장 맥락 혹은 글 맥락에 적절한 의미로 부호화된다. 단어를 처리할 때 즉시적으로 단어와 연합된 모든 의미가 활성화되지만, 약 200m/sec 후에는 단지 맥락에 적절한 의미만이 유용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개개 단어의 부호화는 다음 단계에서 기본적인 글의 단위인 명제의 부호화를 가능하게 한다. 명제는 문장의 의미를 구성하는 추상적이고 기본적인 의미의 단위이다. 글은 상호관련된 명제들의 세트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글의 통합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명제들을 연결하는 과정이다. 논항반복(argument overlap), 즉 서로 다른 명제 내에 동일한 요소가 있을 때, 명제간의 연결이 이루어진다. 논항반복은 대용어(anaphor)를 통해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대용어로는 명사 반복이나 대명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대용어는 그것의 잠재적인 참조어를 모두 활성화시키는데, 그것들 중 적절한 참조어를 선택하는 데 증진기제와 억제기제가 작용한다. 즉 활성화의 개념들 중 적절한 참조어의 활성화는 증진시키고 부적절한 비참조어의 활성화는 억제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용어에 대한 적절한 참조어가 선택되면, 대용어를 포함하는 명제와 참조어를 포함하는 명제간의 연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최종적인 글 이해에는 단어들과 명제들을 부호화하는 것 이상의 과정이 포함된다. 명제들의 부호화는 개념에 관한 지식, 추론에 관한 지식(추론 규칙), 글의 형태에 관한 지식 및 세상사에 관한 일반지식 등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글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해자가 이러한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글 자체의 의미에 대한 통합적이고 응집적인 표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글을 이해한다는 것은 글의 내용 정보, 맥락상황정보 및 이해자의 관련지식들이 통합되어, 저자의 세상모형과 독자의 세상모형 사이에 상응되는 표상을 형성해 가는 능동적 구성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이정모 외, 1998)

2. 읽기 부진의 개념

'읽기 부진(reading underachiever)'은 일반적으로 '읽기 영역에서 정상적인 학교 학습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행학습의 결손 등의 요인으로 인해 동년배의 읽기 발달 수준에 비하여 수락할 수 있을 만큼의 최저 학업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습자'로 정의된다.(천경록, 1999a) 그러나 실제로 '읽기 부진'은 '읽기 장애(reading disability)', '읽기 학습 지체(reading slow learner)', '난독증(dyslexia)' 등의 용어와 함께 여러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어 개념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의 혼란은 개개인의 읽기 능력에서 나타나는 부진 혹은 장애 현상이 교육학, 심리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관심사여서 각 분야의 접근 방법과 강조점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며 또한 읽기 부진의 정도나 성격이 분명한 경계에 의해 나눠지기 어렵다는 데에 원인이 있다.

'읽기 부진'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학습 장애'와 구분되는 '학습 부진'의 개념을 확인하는 일이 유용할 수 있다. '읽기 부진'이 '학습 부진'에서 '읽기'라는 구체적인 영역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학교 현장에서 '학습 부진'은 대체로 특수교육 대상자나 정신적·신체적 결함(정신지체, 정서장애, 뇌성마비, 난청 등) 때문에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경우는 제외하고, 환경이나 교수·학습의 실패 때문에 학업성취 수준이 학생의 잠재적인 지적 능력보다 현격하게 뒤떨어지는 상태를 가리킨다. 박성익(1984)은 우리나라의 교육적 생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 부진아에 대한 정의를 '정상적인 학교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선수학습요소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설정된 교육목표에 비추어 볼 때 수락할 수 있는 최저학업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습자'로 개념화하였다.

'학습 부진'의 개념을 통해 볼 때 '읽기 부진' 역시 읽기 능력의 발달이 부진한 현상을 의미하며, 정상적인 학습 능력을 갖춘 학생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읽기 부진'을 읽기 활동에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보다는 부진을 보이는 현상에 무게가 실린 용어로 보아 '읽기 장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읽기 학습 부진아의 개념에서는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정서 불안, 저지능, 정신 박약 등의 선천적인 능력의 부족으로 정규학습의 적용이 불가능한 학생들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들을 심화 보충형 학습 지도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지도의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읽기 부진'은 읽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래 집단의 읽기 발달 수준에 비해 그 수준이 매우 낮은, 그렇지만 교육적 처치에 의해 개선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Ⅲ. 읽기 부진학생의 읽기 과정에 나타난 특성

1. 읽기 과정 분석

가. 분석 방법

본고에서는 읽기 기능별 분석의 장점과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을 고려하여 읽기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원리 항목 설정을 학습자의 사고구술 자료를 분석하는 범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글을 소리내어 읽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소리내어 읽기'의 범주를 추가하여 함께 고려하였다. 이로써, 사고구술 자료 분석의 범주는 '소리내어 읽기', '개념 이해', '내용 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항목은 자료에 나타난 사고구술 내용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틀을 구성하였다.

<표2> 사고구술 자료 분석의 틀

분석 항목	사고구술 자료 분석의 틀
소리내어 읽기	·읽기 속도 ·오독
개념 이해하기	·읽기 부진학생과 읽기 우수학생 모두 언급한 단어 ·읽기 부진학생만 언급한 단어 ·읽기 우수학생만 언급한 단어
내용 확인하기	·특정 사실의 확인 ·미(未)이해에 대한 인식 ·세부사항 요약 ·내용에 대한 질문 ·지시 내용의 확인
추론하기	·뒷받침이 되는 세부 내용 추론하기 ·중심 생각 추론하기 ·원인과 결과의 관계 추론하기 ·뒤에 올 내용 예측하기 ·자신의 배경지식과 연결지어 추론하기 ·자신의 생활과 연결지어 추론하기 ·글쓴이에 대한 추론하기 ·글의 종류와 성격 추론하기
평가와 감상하기	·평가 (표현에 대한 평가/내용에 대한 평가) ·감상

나.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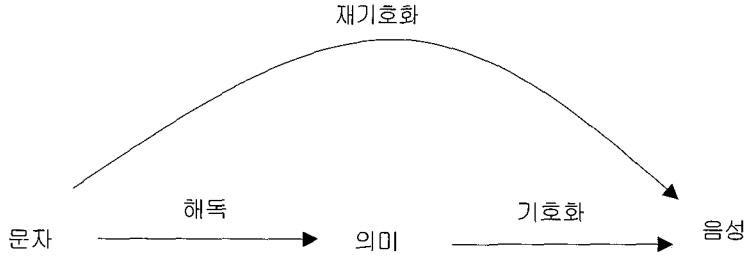
1) 소리내어 읽기

가) 읽기 속도(速度)

읽기 속도란 빨리 읽는 정도를 말하는데, 읽기 부진학생의 읽기 과정에 나타나는 가장 표면적이면서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가 읽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다. 이 때 말하는 속도는 글 자체를 소리내어 읽는 데 걸린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학습자가 글을 읽으면서 떠올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시간은 제외된 것이다. 동일한 한 편의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데 걸린 시간은 읽기 우수학생의 경우 평균 약 9분이지만 읽기 부진학생의 경우는 평균 약 7분으로, 읽기 우수학생의 경우가 조금 길었다.

하지만 이것은 읽기 우수학생의 경우 글을 읽으면서 생각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말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서 읽는 속도는 훨씬 빨랐다. 구체적으로 주어진 글에서 특정한 한 문단을 정하여 그 문단을 읽는 데 걸린 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읽기 우수학생들의 경우 평균 19초인데 비해 읽기 부진학생들이 한 문단을 읽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25초였다. 이렇게 읽는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글을 천천히 읽어서라기보다는 중간 중간 끊어지고 더듬거리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노명완(1988)에서는 같은 '소리내어 읽기'라 하더라도 독서 능력 발달 단계에 따라 조금 다른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읽기를 처음 배우는 초기 독서 단계의 독자는 '문자→음성화→의미 파악'의 과정을 거치지만 읽기에 어느 정도 익숙한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의 독자는 문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각하면서 그 의미를 떠올리고 그 후에 발음을 한다는 것이다.



<그림1> 낭독(朗讀)의 과정(노명완 외, 1988)

이러한 사실은 읽기 부진학생들의 읽기 속도가 느린 이유를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연령이나 독서 발달 수준을 고려할 때, 또한 이후에 기술할 오독 분석 결과를 볼 때, 모두 <그림1>과 같은 과정을 통한 소리내어 읽기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읽기 부진학생의 경우에는 문자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읽기 속도가 초등 학교 저학년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중등 학교에서도 독해력 측정의 방법으로서 유용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것이 읽기 부진학생을 진단하는 간편한 방법으로도 쓰일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나) 오독(誤讀)

'오독(誤讀)'이란 일반적으로 소리내어 읽는 과정에서 문자를 잘못 발음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것은 대체로 글자를 확인하지 않고 예측한 대로 글을 읽었을 때 예측한 바와 실제로 텍스트에 제시된 것이 다를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오독은 하향적(下向的) 또는 상호작용적(相互作用的) 읽기 이론에서 설명하는 추론적 읽기의 한 국면을 보여주는 현상으로서, 그 자료를 분석하여 추론의 단서가 되는 요소를 발견하기도 한다.

읽기 부진학생과 읽기 우수학생의 소리내어 읽기 과정에 나타난 오독의 빈도는 전자가 후자에 비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양쪽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편의 글을 읽는 도중에 나타난 오독의 횟수는 읽기 부진학생 쪽이 1인당 평균 4.4회인데 비해 읽기 우수학생 쪽은 1인당 평균 4.0회로 나타나 양쪽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오독 현상을 원인과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한 결과, 두 집단간에 오독의 질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읽기 부진학생들은 단순한 발음상의 실수나 뜻이 통하는 다른 단어 대치, 조사 생략 등과 같은 유형의 오독보다는 생소한 단어를 틀리게 읽거나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대치하는 등의 오독이 두드러진다. 또한 읽기 우수학생들은 잘못 읽은 부분을 즉시 수정하여 다시 읽는 데 비해 읽기 부진학생들은 그런 경우가 드물었다.

읽기 능력을 '독해력'과 '읽기 속도'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읽기의 목적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으므로 독해력의 측정만으로 읽기 능력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리내어 읽기' 활동을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나 수준을 간단하게 진단하고 검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읽기 이해력의 측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학생들의 소리내어 읽기 과정에 나타난 오독을 분석함으로써 오독을 만든 학생의 읽기 수준을 대략적으

로 짐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읽기 능력 결손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3> 읽기 부진학생과 읽기 우수학생 사고구술 자료에 나타난 오독의 예

	오독의 예
읽기 부진 학생	전 국토의 무덤화를 막자고 외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화장실(화장)** 시설이 모자란다. 잔재주 부리지 말고 히딩크처럼 우직하게 기초를 닦는 일에 **매진한다(매진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살기 좋은 나라의 국민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세계적 기상 이변이 일어난다거나 농산물 수출국이나 곡물 업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쌀 공급을 위협하면 우리 나라와 같은 식량 부족 국가는 **솔수무책(속수무책)**이 돼 버릴 것입니다.
읽기 우수 학생	우리 국가대표선수들의 이름들은 일일이 **(다)** 못 외어도 히딩크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그래도 혹시 몰라 비를 맞은 팔에 혓바닥을 대보고서야 비를 맞은 게 아니라 식초를 뒤집어쓴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되었다.)**

2) 개념 이해

어휘 지식은 개념 이해와 연결되어 독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필자가 선택하여 사용한 단어의 이해 없이는 글의 이해가 불가능하며, 개개 단어를 이해하고 단어들의 관계 그리고 단어의 집합이 나타내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독서이기 때문이다.(박영목 외, 1998)

읽기 부진학생들이나 읽기 우수학생들 모두 글을 읽는 과정에서 생소한 단어를 만났을 때 대체로 독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집단 간의 반응은 크게 달랐다. 읽기 부진학생들은 읽기 우수학생들에 비해 뜻을 모르는 단어의 양이 많았으며 모르는 단어 속에 비교적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읽기 우수학생들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문맥을 통해 최대한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내려고 노력하거나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의 의미를 분석하여 단어의 의미를 추리하는 데 비해 읽기 부진학생들의 경우에는 모르는 단어라는 것만 인지할 뿐 문맥을 통해 이해하거나 형태소 분석을 통한 의미 추리를 시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읽기 부진학생들은 모

르는 단어를 하나 하나 따지지 않고 그냥 모르는 채로 넘어가는, 혹은 뛰어 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의욕의 부재와 문맥을 통한 단어 의미 추리 전략의 부족 및 잘못된 읽기 습관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읽기 부진학생들은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들을 통해 단어 전체의 의미를 짐작해 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며, 한 단어가 다양한 의미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실제로 자신이 알고 있는 의미와 다르게 사용된 경우에 직면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언어, 특히 단어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고력의 차이로 해석된다.

<표4> 개념 이해와 관련된 사고구술 내용 비교

단어	사고구술 내용	
	읽기 부진학생	읽기 우수학생
산아제한	산아제한 정책이란 게 뭔지 잘 모르겠어. 산아제한? 산아제한 정책이 뭘까? (산아제한) 나는 그것을 모른다.	산아제한이 뭐지? 애기 낳는 거 제한하는 건가? 아이를 적게 낳는 것 말하는 거지? 산아제한 정책이 뭐지? 산아제한이 무슨 뜻이지?
명징	명징이 뭐지? 명징? 이게 무슨 뜻이지? 명징이 뭔지 잘 모르겠다. 어 명징이라는 말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 명징? 명확 아니면 흐릿흐릿해진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정확하게는…….	'명징'이 무슨 뜻이지? 어쨌든 사물들이 그냥 다 달라 보인다는 말인 것 같은데, 비가 오고 이런 날씨에는 다 그런가 보지. 참…. 명징? 무슨 뜻일까? 흐릿해진다는 말일까 아니면 명확해진다는 말일까? 이런 문장에선 잘 파악이 안 된다. 명징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 명징해지다가 선명해지다란 말일까?

3) 내용 확인

본 연구에서 말하는 '내용 확인'이란 단어를 이해하고 문장의 의미를 통합하여 글의 표면에 나타난 의미를 파악하는 수준의 이해를 뜻하는 것으로, 문면 이해, 사실적 이해,

명시적 이해 등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필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인데, 학생들의 사고구술 자료에서는 특정 사실의 확인, 세부 사항 요약, 지시 내용의 확인, 미이해에 대한 인식 등이 나타났다.

읽기 우수학생들은 글 속에 담긴 정보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기존 지식과 대비하여 하나 하나 분석하는 모습이 보이며,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다시 읽기나 배경지식 확충, 주어진 글의 표현에 대한 비판 등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을 하는 데 비해, 읽기 부진학생들은 의미에 주의 깊게 유의하지 않고 읽기 전략에 대한 인식과 활용 노력을 거의 하지 않으며 내용 확인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읽기 우수학생들은 부분 부분의 내용을 짚고 넘어가며 요약하고 해석하는 태도를 나타냄에 비해 읽기 부진학생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읽기 부진학생들이 읽기 전략에 대한 지식 및 활용 능력과 읽기 경험 등이 부족하고, 태도면에서 적극성이 부족하며 습관적으로 세밀한 사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읽기 부진학생들은 글을 읽는 과정에서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질문보다는 내용과 무관하거나 피상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문장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질문을 하기보다는 문장 속의 한 단어에 필요이상으로 집착하고 반응하여 그 단어가 연상시키는 느낌을 바탕으로 내용 이해와 관련이 없는 질문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또한 의미가 중다적(重多的)인 단어를 문맥에 맞지 않게 해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이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어휘 개념의 활성화 수준을 적정화함에 있어 억제기제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억제기제 미작동 가설의 타당성을 생각해 보게 한다.

한편, 읽기 우수학생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글을 읽으면서 부분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고 문맥을 고려하여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가는 데 비해 읽기 부진학생들은 전혀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읽기 부진학생을 지도할 때, 반드시 글을 요약하고 해석하며 읽어가야 함을 이해시키고 그 방법을 지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읽기 우수학생들은 거의 모든 문장들에 대하여 다양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데 비해 읽기 부진학생들은 그냥 지나치는 문장이 많으며, 주로 명백한 사실이나 구체적인 묘사만을 골라서 읽는 경향도 나타났다.

<표5> '특정 사실의 확인'을 보여주는 사고구술 내용

	사고구술 내용의 예
읽기 부진 학생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란 곡물의 유전자를 조작해, 병충해를 잘 견디거나 제초제의 독성을 이겨내게끔 조치를 한 농산물입니다.(**변형 농산물이란 게 이런 거구나.**) 우리 나라는 1999년 현재 식량 중에서 쌀만 정부 보조와 농산물 보호 정책을 통하여 100% 자급률을 보이고 있을 뿐 밀, 콩 등의 기타 식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전체 식량 자급률은 30%가 안 됩니다.(**밀과 콩을 수입한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어. 되게 놀랍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멋있는 디자인 감각으로 이렇게 못나고 더러운 발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역전(逆轉)시켜 놓은 버선을 만들었던 것이다.(**한 마디로 발이 되게 더럽고 못난 발을, 한 마디로 버선이 발을 아름답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 같다.**)
읽기 우수 학생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란 곡물의 유전자를 조작해, 병충해를 잘 견디거나 제초제의 독성을 이겨내게끔 조치를 한 농산물입니다.(**어 이런 걸 말하는 거라구? 내가 생각하기엔 두세 개의 농산물을 겹쳐놓은 걸 말하는 건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병충해를 견딘다든가 제초제, 어 잡초를 없애는 그런 약에 강해지는 그런 것도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 그러는구나.**) 우리 나라는 1999년 현재 식량 중에서 쌀만 정부 보조와 농산물 보호 정책을 통하여 100% 자급률을 보이고 있을 뿐(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표현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이 글이 1999년에 쓰여진 건 알겠다. 왜냐하면 1999년 현재라고 말했으니까. 그리고 정부의 보조를 통해서 쌀만이 100%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외에는 아니라는 거네.**) 예를 들면, 기후가 더운 지방인 인도 같은 데서는 낮의 더위에서 벗어나게 된 밤에 휴식을 찾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림자 인형극이 많이 공연되었다.(**그렇구나. 인도는 그림자 인형이구나. 그림자 인형의 시초가 인도란 말이지?**)

<표6> '미이해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사고구술 내용

	사고구술 내용의 예
읽기 부진 학생	그때쯤이면 빗방울 소리에 고조된 들뜬 마음과 온갖 상념들은 순식간에 비를 맞아 벗겨질 머리와 오랜 세월 비를 맞고 코가 나가떨어진 어느 동상 생각으로 바뀌어져 있다.(**동상 생각은 자기의 동생을 말하는지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동상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2000년부터 시작하는 세계 무역 기구의 협상에서 핵심 의제가 바로 농산물에 대한 국경의 장벽, 정부 보조를 없애는 문제입니다.(**글쎄 이 문장도 무슨 생각이 나왔는지 생각이 딱 안 나는데? 이 문장을 읽으니까.**)
읽기 우수 학생	우리가 느끼는 머무름에 대한 불안감은 그만의 이유를 만들어 해소시켜준다.(**머무름에 대한 불안감? 머무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계속 읽어봐야겠다.**) 그건 사람들의 속도 마찬가지라 가만히 웅크리고 숨어 있던 상념과 그리움들이 빗방울 소리에 하나둘 고개를 내밀고 마음을 움직인다.(**의인법도 쓰고, 문장이 한번 읽어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좀 어려운 것 같다. 어렵고 뭐라고 해야되지? 수준 높아 보이는 그런 표현을 골라 쓴 것 같기도 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 상념은 또 뭐지? 왜 이렇게 모르는 말이 많지? 앞으로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

<표7> '세부사항 해석 및 요약'이 나타난 사고구술 내용

	사고구술 내용의 예
읽기 부진 학생	우리 국가대표선수들의 이름들은 일일이 못 외어도 히딩크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그만큼 히딩크가 유명하다.)**
읽기 우수 학생	히딩크는 기초체력과 기본기만 갖추면 어디에 내놓아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해 보였다.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이 가장 확실하고 또 빠른 결과를 보장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었다.**(기초,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구나.)** 지금 당장 껌 한 개 더 파는 데 목매지 말고 과감하게 미래에 투자하자.**(현실에 급급하지 말고 멀리 미래를 내다보란 말이지?)** 그러나 쌀을 자급해 온 방법도 세계화 추세 속에서 값싼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 미국, 호주, 남미 등의 농산물 수출국으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결국은 쌀 얘기인 것 같다. 그러니까 요즘에 외국에서 값싸게 쌀을 들여와서 쌀을 팔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걱정, 우려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표8> '내용에 대한 질문'이 나타난 사고구술 내용

	사고구술 내용의 예
읽기 부진 학생	우리는 이제 그가 떠난 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그가 가르쳐줬다는 그 많은 교훈들을 하나하나 다 흉내내 보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일지 모른다.**(우리가 교훈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쌀을 자급해 온 방법도 세계화 추세 속에서 값싼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 미국, 호주, 남미 등의 농산물 수출국으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도전? 우리도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
읽기 우수 학생	대대적인 흡연운동을 일으킨 첫 해에 벌써 20대 이상의 남성 흡연율이 55%로 급감했다. **(우와, 진짜? 급감했다고? 원래 몇 %였는데?)** 산도가 거의 식초와 다름없는 비 때문이다.**(식초와 산도가 비슷하면 굉장히 산도가 높은 건가? 전에 책에서 보니까 머리 감을 때 식초를 물에 풀어서 감으면은 좋다고 그랬는데 그거하곤 틀린 건가?)**

4) 추론

추론이란 일반적으로 텍스트에 분명히 명시되지 않은 정보나 개념을 독자가 이해 과정에서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텍스트 이해에서 추론이 중요한 이유는 불완전한 표면적 텍스트 정보를 풍부하고 응집성 있게 만들 수 있으며, 또한 텍스트 정보가 풍부하고 완전하다 하더라도 독자나 청자의 지식이나 전략에 의해서 정보가 재구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사고구술 내용 중 추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추출하여 그것을 분석한 결과, '뒷받침이 되는 세부 내용 추론하기', '중심 생각 추론하기', '원인과 결과 추론하기', '뒤에 올 내용 추론하기', '자신의 배경지식과 연결지어 추론하기', '자신의 생활과 연결지어 추론하기', '글쓴이에 대하여 추론하기', '글의 종류와 성격에 대하여 추론하기' 등이 나타났다.

읽기 부진학생들은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의 성격이나 생각 등을 추측하거나 글의 종류, 혹은 특성 등에 대한 추론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글을 거시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 부족하고 글의 종류나 그에 따른 특성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다음에 올 내용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적극적인 태도 부족과 전략의 부재, 의욕 부족 등과 함께 배경지식의 부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읽기 부진학생들은 중심 생각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떤 근거를 제시하거나 귀납적으로 중심 생각을 이끌어 내지 않고 직감적으로 말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논리적 분석력의 부족과 함께 스스로도 중심 생각 찾기에 대한 자신감 결여에도 원인이 있다. 또한 읽기 우수학생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연속적인 추론이 읽기 부진학생의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원인은 학생들의 배경지식 부족, 논리적 사고력의 부족, 작업기억 용량의 차이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읽기 부진학생이 글 속에 주어진 정보에 충실하게 추론하지 않고 스스로 어떤 의미를 첨가시켜 글에 담긴 의미를 왜곡하기도 하고 단어의 의미를 상식에 의거해 해석하지 않고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결과적으로 내용의 이해에 방해를 받기도 하는 것은 텍스트 이해 과정에 작용하는 억제기제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읽기 부진학생들의 추론 중에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짓는 추론은 배경지식의 부족 때문에 추론의 양과 질 면에서 읽기 우수학생과의 차이가 매우 심한 반면, 자신의 생활과 연결지어 추론하는 부분에서는 읽기 우수학생과의 차이가 가장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9> 뒤에 이어질 내용 추론하기

	사고구술 내용의 예
읽기 부진 학생	뒤축과 뒤꿈치의 비율이나 회목(손목이나 발목의 잘록한 부분)과 버선목의 길이나 둘레도 모두가 다 발의 인체 공학에서 벗어난 창조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이 다음 문장에선 어려운 말이 많을 것 같다.)
읽기 우수 학생	농작물이나 금속의 부식 정도로 짐작만 해왔지 실제로 내가 산성비를 스스로 실감해본 것은 최근에 와서의 일이다.(역시 산성비에 대한 얘기다. 그렇다면 자연 오염에 대한 얘기겠구나.) 21세기는 전 세계가 물 부족뿐만 아니라 식량 부족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식량 부족의 이야기, 물 부족의 이야기. 뭔가 인간 생존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가 보다.) 이번 월드컵의 승리는 선수들만 이룬 게 아니다.(진짜, 히딩크도 물론 승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것 같다. 뒤를 보면 국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겠지?)

<표10> 뒷받침이 되는 세부 내용 추론하기

	사고구술 내용의 예
읽기 부진 학생	그 인형들은 그 나라의 국민성에서부터 그 고장의 자연 환경이나 생활, 문화나 종교의 차이, 또는 인간의 얼굴 모습까지도 반영이 되어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손으로 만든 인형이면 얼굴이 다 다르니까 특징을 갖고 있겠지?) 서양의 양말은 신었을 때 비로소 형태가 생겨난다. 양말은 발 생김새를 그대로 나타낸다.(거미줄처럼 발에 밀착되니까.)
읽기 우수 학생	그 인형들은 그 나라의 국민성에서부터 그 고장의 자연 환경이나 생활, 문화나 종교의 차이, 또는 인간의 얼굴 모습까지도 반영이 되어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인형도 옷을 입고 있고, 얼굴 생김새도 있고, 어떤 악세사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 인형도 다르고....우리나라 인형에는 얼굴 색깔이 황토색인데다가 바비 인형은 하얗고 눈도 크고 그런 걸 말하겠지.)

<표11> 중심 생각 추론하기

	사고구술 내용의 예
읽기 부진 학생	히딩크는 그다지 축구를 잘 하지 못했는데 히딩크 덕분에 4강에 오르게 됐다. 이것은 히딩크가 우리나라 선수들을 믿고 끝까지 훈련도 잘해주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한 거는 기초가, 시간을 너무 조급하게 갖지 말고 기초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다. 이 글을 정리하자면 음, 우리 사람들을 통해 환경이 오염되어 이렇게 많은 산성비가 내리는 것 같다. 우리가 환경오염을 잘 지키면 산성비도 없어질 것 같다.
읽기 우수 학생	그럼 이 글의 주제가 뭘까? 히딩크 얘기를 하긴 했지만 히딩크를 칭찬한다든가 하는 말이 주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 중간 부분에 기초를 다지자 라는 말이 많이 나왔으까 아마도 기초를 튼튼히 하자 그런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 기초부터 튼튼히 해서 미래를 생각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 같애. 맞아, 그리고 여러 교육과 연구 기초학문연구에 투자를 많이 해야한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이 사람의 가장 핵심 내용은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 인 거 같애. 그래서 이런 일의 소중한 가르침을 주신 히딩크씨한테 고맙다고 하고 하니, 히딩크씨가 주신 소중한 가르침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

<표12> 원인과 결과 추론하기

	사고구술 내용의 예
읽기 부진 학생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산성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거의 없고 대도시의 경우는 1년 내내 산성비가 내린다.(일년 내내 산성비가 내린다구? 그럼 홍수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기물이 파손되고 말 텐데.) 문제는 골고루 분배하는 일입니다. 수출국들이 농산물의 값을 올리기 위해 곡물을 폐기 처분하는 경우도 있음을 생각할 때 생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분배입니다.(곡물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아프리카나 북한 같은 데 줘야 더 편하지 않을까?
읽기 우수 학생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산성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거의 없고 대도시의 경우는 1년 내내 산성비가 내린다.(으악 그럼 서울에 내리는 비가 모두 산성비란 거지?) 산성비가 요즘에 와서 유독 문제가 된다기보다 환경 오염의 강도가 세지는 만큼 그 산도도 점점 강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나중에는 우산도 못 쓰고 나가는 게 아닐까? 우산이 뚫려버릴 지도 몰라.)

<표13>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연결지어 추론하기

	사고구술 내용의 예
읽기 부진 학생	요즘 내리는 비는 으레 산성비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농작물이나 금속의 부식 정도로 짐작만 해왔지 실제로 내가 산성비를 스스로 실감해본 것은 최근에 와서의 일이다.(**산성비를 많이 맞으면 대머리 된다는 소리도 들었다.**) 21세기는 전 세계가 물 부족뿐만 아니라 식량 부족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특히 아프리카 불쌍한 사람들이 생각난다.**)
읽기 우수 학생	그러나 그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맞아. 우리나라 축구가 좀 엘리트 막 이렇게 치우져 있다고 들었어.**) 북유럽의 경우는(**북유럽? 날씨가 춥고 많이 발달되어 있고,**) '줄인형'에 의한 줄인형극이 매우 왕성하였다.(**줄인형이 북유럽에서 온 거구나. 줄인형 좋지.**) 그런데 북유럽 사람들은 줄인형을 다룰 때 매우 가느다란 실을 썼다.(**실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그런가?**) 그런 것은 그들의 성격이 예민하고 섬세한 데서 오는 기질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하겠다.(**응 그렇구나. 반드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는 실을 쓴 게 아니라, 날씨가 추우니까 그 쪽에서 시계가 발달했다 그랬지? 날씨가 추우니까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된 거구나.**)

<표14> 자신의 생활과 연결지어 추론하기

	사고구술 내용의 예
읽기 부진 학생	또한, '동화의 아버지'라는 안데르센도 어렸을 때 자기가 이야기를 만들고는 그것을 인형놀음으로 만들어서 즐겼다고 한다.(**혼자 있을 때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다. 나도 가끔씩 이런 일을 하고 논다.**) 그런 미혹된 마음에, 어릴 적 우산을 지니고도 무슨 바람인지 비를 온몸에 고스란히 맞으며 집으로 돌아오며 느끼던 이상한 자유로움과 해방감의 기억이 더해져 비를 피할 아무런 무장 없이 빗속을 나선다.(**비 맞는 게 좋아서 어릴 적에 그런 적이 많다.**)
읽기 우수 학생	대대적인 흡연운동을 일으킨 첫 해에 벌써 20대 이상의 남성 흡연율이 55%로 급감했다.(**우리 친척들도 그렇다. 우리 큰아버지께서도 이주일을 보고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 중이다.**) 히딩크였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일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맞다. 내가 축구 감독이었다면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못하냐고 하면 내 나라로 돌아갔을 것 같다.**)

5) 평가와 감상

읽기 기능에서 평가란, 글에 나타난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나 그것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추리, 상상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필자가 제시한 주제, 자료, 증거, 논증, 인물의 성격, 작품의 가치, 정확성, 효용성, 필자의 의도와 글의 표현 방식 등을 일련의 준거에 의해 타당한 것으로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불합리한 것으로 반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읽기를 '축어적 읽기', '함축적 읽기', '비판적 읽기'로 나눌 때 '비판적 읽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감상은 자신의 지식, 경험, 가치관 등과 관련지어 글의 내용이나 정서, 문체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정의적 감동을 말한다. 이러한 감상은 지금까지 국어교육에서는 주로 문학 작품 읽기에서 논의되었지만 설명적 텍스트나 설득적 텍스트와 같은 인지적 텍스트라고 해서 텍스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이해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이삼형, 1996)

읽기 부진학생의 자료에서는 글의 표현에 대한 평가보다 내용에 대한 평가가 더 많이 나타났으며, 글의 표현이나 내용에 대한 평가에서 글 전체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았다. 내용에 대한 평가에서 글의 부분적인 내용에 대한 찬성, 불만, 혹은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 등은 나타나지만 텍스트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자신에게 유익한지, 새로운 정보인지 등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글 전체의 내용이나 특성을 종합하는 능력의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글의 표현이나 내용을 평가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 어휘의 수준이 읽기 우수학생들에 비해 낮았고, 평가의 내용 면에서도 깊이 있는 분석이 결여되어 있었다.

글을 읽고 감상하는 면에서는 배경지식의 차이 정도 외에는 두 집단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양쪽 학생들의 자료에서 모두 주어진 글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감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평상시의 읽기 상황이라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표15> 표현에 대한 평가의 예

	사고구술 내용의 예
읽기 부진 학생	비가 내린다. 유난히 하늘이 낮게 깔리고 세상이 흐릿한 명암 속으로 들어간다.(**미술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지금 누군가 빗속을 걷고 있다면 그는 분명 실연한 사람이거나 '미친' 사람이다.(**이렇게 미친 사람에까지 비유가 나는 이해를 못할 것 같다.**) 거기에 불완전하게 붙어 있는 다섯 개의 발가락하며 나사못같이 튀어나온 복숭아뼈하며 그 생김새도 말이 아니다.(**발이 제일 못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표현할 것까진 없다고 생각한다.**)
읽기 우수 학생	비가 내린다. 유난히 하늘이 낮게 깔리고 세상이 흐릿한 명암 속으로 들어간다.(**되게 문학적인 표현 같다.**) 지금 누군가 빗속을 걷고 있다면 그는 분명 실연한 사람이거나 '미친' 사람이다.(**표현이 극단적이지만 주제가 잘 드러나는 것 같아.**) 나사못같이 튀어나온 복숭아뼈하며(**글을 굉장히 맛깔스럽게 쓰는 것 같다.**) 거기에 불완전하게 붙어 있는 다섯 개의 발가락하며(**발가락이 불완전하게 붙어 있다고? 재밌는 표현이네.**)

<표16> 내용에 대한 평가의 예

	사고구술 내용의 예
읽기 부진 학생	그의 어록을 묶어 경전처럼 읽어야 한다는 말에서 히씨 성의 시조가 돼달라는 애원에 이르기까지 그는 이미 신화적인 존재가 되었다.(**나에게는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다.**) 거기에 불완전하게 붙어 있는 다섯 개의 발가락하며 나사못같이 튀어나온 복숭아뼈하며 그 생김새도 말이 아니다.(**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도 개성있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읽기 우수 학생	우리 나라와 같은 식량 부족 국가는 속수무책이 돼 버릴 것입니다.(**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문을 열면 안 된다는 거야.**) 바로 농산물에 대한 국경의 장벽, 정부 보조를 없애는 문제입니다.(**하지만 이걸 없애버리면 외국에서 수입돼 들어온 농산물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은 그 쪽에서 값을 엄청나게 올려버리면 우리는 그 값을 내고 사먹어야 되는 거잖아. 개인적으로 뭐랄까 이 문을 여는 건 반대하고 싶은데.**)

<표17> 감상의 예

	사고구술 내용의 예
읽기 부진 학생	그러나 쌀을 자급해 온 방법도 세계화 추세 속에서 값싼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 미국, 호주, 남미 등의 농산물 수출국으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그러니까 값싼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 미국, 호주, 남미 등은 되게 좋겠다.) 분배만 잘 되어도 굶주리는 사람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굶주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읽기 우수 학생	누가 빗속을 걷는 자유로움을 앗아갔는가.(마지막 멋있게 맺었네. 음. 어쩐지 마지막을 읽고 있으면 가슴이 아파.) 지난 1994년 이래로 아프리카나 북한에서는 수백만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 갔습니다.(가슴 아픔 일이야. 수백만 명이나. 내가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있을 때 지금도 북한이나 아프리카에서는 하늘에서 우유비가 내리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이 있겠지?)

이상에서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읽기 부진학생의 읽기 과정에 나타난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내용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오독

- 자주 더듬거리며 읽는 속도가 느리다.
-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장애를 겪거나 내용을 잘못 이해함을 보여주는 오독이 많다.

◈ 어휘력 및 개념 이해 전략의 부족

- 뜻을 모르는 단어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다.
- 뜻을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문맥을 통해 이해하거나 형태소 분석 등을 통해 뜻을 추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 한 단어의 여러 가지 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표현한 어휘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 내용 확인을 위한 전략의 부족

- 글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분석적인 면이나 전략적인 면이 부족하다.
- 내용 확인을 위한 질문을 던짐에 있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피상적인 질문들을 많이 한다.
- 세부사항이나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며 읽지 않고, 읽을거리를 성큼성큼 빠뜨리고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

◈ 논리적이고 연속적인 추론의 결여

- 읽기 부진학생들의 추론에서는 글쓴이에 대한 추론과 글의 종류나 성격 등에 대한 추론이 나타나지 않는다.
- 뒤에 이어질 내용에 대해 거의 추론하지 않는다.
- 중심 생각 추론에 있어서 논리성이 부족하고 표면에 드러난 내용에서 중심 생각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 텍스트의 한 문장 이상을 넘어서는 연속적인 추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 글 속에 없는 내용을 스스로 추론하여 글의 내용을 왜곡하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해석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 총체적인 평가 및 감상의 결여

- 글 전체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지 않으며, 평가 내용의 깊이나 평가에 사용된 어휘의 수준이 비교적 낮다.
- 감상 면에서는 읽기 부진학생과 읽기 우수학생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Ⅳ. 읽기 부진학생을 위한 읽기 지도 방안

본절에서는 읽기 부진학생의 읽기 과정에 나타난 특성들을 바탕으로, 이들을 지도하는 데 적합한 지도 방법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였다.

1. 개념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읽기 부진학생들을 위한 수업에서는 보통의 읽기 수업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어휘력 향상을 위한 지도에 할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정규 수업 시간에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각주에 수록된 새로 나온 낱말 확인이나 모르는 낱말 사전 찾아보기 정도의 방법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읽기 부진학생들에게는 보다 세심하고 구체적인 지도 방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어휘 지도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 특히 읽기 부진학생들의 어휘력 향상을 위해 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들면, 학생 스스로 공부할 단어 선택하기, 문맥을 활용하여 빈칸 메우기, 단어의 뜻 미리 예측하기 등이 있다.

가. 학생 스스로 공부할 단어 선택하기

이 방법은 읽기 부진학생들의 낮은 학습 의욕을 감안하여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혹은 알고 싶은 단어를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우선,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읽기 자료를 선택한 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 중에 자신이 모르는 단어를 확인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선택된 단어는 학생들이 단어장에 쓰고 그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모두 찾는다. 그리고 단어의 여러 가지 용법을 활용하여 짧은 문장을 지어보게 한다. 끝으로 읽기 자료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가 사전에 나온 의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한다.

나. 빈칸 메우기

빈칸 메우기는 읽기 부진학생들이 주어진 맥락 정보를 적절히 활동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자식인 우리들에게 (　　) 을(를) 주셨다."라는 문장을 읽은 경우 행동의 주체가 '어머니'이고 행동의 내용이 '자식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신한다'라는 정보를 근거로, 들어가야 할 단어가 '아침밥', '용돈', '사랑의 쪽지' 또는 '일일 계획서'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빈칸 메우기를 할 때는 학생의 읽기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교사가 직접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문장부터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부 단어를 지우고, 지워진 부분에 괄호를 만들어 학생이 문법과 문맥을 고려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단어를 직접 적어 넣도록 지문을 재구성한다. 삭제할 단어를 선정할 때는 다음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김동일 외, 2003)

① 삭제할 단어는 문맥적으로 최소한 다른 하나의 문장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삭제할 단어는 주변 구절(text)에 의해 예견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삭제할 단어는 전반적인 주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미를 제공하는, 상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삭제할 단어는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계속 흥미를 갖고 끝까지 빈칸을 채우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내용과 난이도 면에서 적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단어의 뜻 미리 예측하기

단어의 뜻 미리 예측하기는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낱말의 의미를 자신의 배경지식이나 경험을 동원하여 먼저 추측해 본 후 나중에 사전에서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글을 읽는 과정에서 마주친 낯선 단어에 대해 추측하거나 문맥을 통해 알아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읽기 부진학생들의 읽기 습관을 바꾸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래와 같은 틀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다.

낱말	내 생각에는	사전에서는

2. 내용의 사실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읽기 부진학생들의 사실적 이해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도 방법으로는 질문하기, 문단 단위로 내용 지도 만들기, 중요하지 않은 정보 삭제하기, 한 마디로 요약하기, 생각기호 활용하기 등을 들 수 있다.

가. 질문하기

질문하기는 학생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하도록 도와주고, 글의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고, 학생 스스로가 글을 읽는 동안 글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먼저 교사가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거꾸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 후, 학생들에게 글의 제목, 줄거리, 세부 내용 등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만들고 그에 대한 답을 찾도록 함으로써 활용될 수 있다. 이 때 교사는 글 전체의 핵심어를 찾도록 하는 질문이나, 글의 주요 내용에 대한 문단별 요약을 요구하는 질문 등의 거시적인 질문과 글의 세부 내용을 묻는 미시적인 질문이 골고루 나올 수 있게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질문을 보고 좋은 질문을 골라보게 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나. 문단 단위로 내용지도 만들기

문단 단위로 내용지도 만들기는 학생들이 문단 단위로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전략을 익히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읽기 부진학생들에게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활동은 매우 어렵게 느껴지므로 한 문단 정도의 분량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다. 우선 문단의 주제가 핵심어를 찾게 한 후, 이것을 중심으로 마인드 맵(mind mapping)을 하게 한다.

다. 중요하지 않은 정보 삭제하기

중요하지 않은 정보 삭제하기를 가르칠 때는 먼저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익숙한 내용과 단어로 구성된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문단을 제시한다. 학습자들은 교사가 제공하는 이 문단을 읽은 후 덜 중요한 정보를 찾고 이를 삭제한다. 이때 학습자의 흥미를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색깔을 달리하여 색칠하게 할 수 있다. 그런 후 남은 문장들로 문단을 만들어 의미가 통하는지 판단하게 한다.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심 내용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한데, 중심 내용을 담은 문장, 즉 중심 문장을 찾는 전략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비교적 쉬운 글을 통해 중요하지 않은 정보 삭제하기 활동을 한 뒤에 본격적으로 학생들에게 중심 생각을 선정하는 전략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문의 유형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 한 마디로 요약하기

한 마디로 요약하기는 읽기 자료를 미리 몇 부분으로 나눈 다음 두 사람이 함께 책을 읽어나가다가 정해진 부분에서 읽기를 멈추고 거기까지 읽은 내용에 대하여 줄거리나 중심 생각 등을 한 마디씩 말로 요약하여 표현해 보는 활동이다. 일반적인 요약하기 활동과 다른 점은 대상이 읽기 부진학생들임을 고려하여, 글 전체가 아닌 부분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게 하고 요약의 분량도 매우 적게 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과 짝과 함께 서로 번갈아 가면서 활동을 할 수 있어 학생들의 흥미를 높여 줄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활동의 반복은 읽기 부진학생들로 하여금 글을 읽으면서 문단 단위로 글을 요약해 보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다.

마. 생각기호 활용하기

생각기호 활용하기는 읽기 부진학생들의 대충 읽기, 건너뛰며 읽기 등의 습관을 고치고 내용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사고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이다. '생각기호'란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을 표시하는 기호로서, 생각기호로 자신의 생각을 표시하면서 읽어나가는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점검하기'를 하게 되고, 읽고 있는 내용에 보다 깊이 있게 접근하게 된다.

먼저 학생들에게 생각기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 후 어떤 생각을 어떤 기호로 표시할 것인지를 정한다. 그리고 각자의 생각기호로 생각을 표시하며 글을 읽게 한 후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보게 한다.

<생각기호의 예>
? : 어렵거나 의문을 가지게 되었을 때
! :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줄 때
☆ :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나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
↔ :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때

3. 추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읽기 부진학생들의 추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방법으로는 심상 만들기, 문장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 추론하기, 뒤에 이어질 내용 추론하기, 문장막대로 글과 경험 잇기 등을 들 수 있다.

가. 심상 만들기

심상 만들기는 학생들이 주요 내용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요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주로 활용된다. 읽기 능력 발달을 설명하는 심상 모형에 의하면, 학생들은 글을 읽는 동안 글 속에 기술되어 있는 인물, 사건, 상황 등을 반영하는 영상을 마음속에 형성하는 동시에 사실적 정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명제로서 부호화한다고 한다. 읽는 자료가 공간적 정보를 많이 담고 있을수록 학생들은 제시된 정보에 대한 심상을 형성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글 속에 기술된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기억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간적 정보라 할지라도 학생들은 제시된 정보를 명제로서 기억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한다.

심상 만들기 방법의 예로는 학생들에게 글을 읽는 동안 마음속에 글의 내용에 대한 심상을 만들어 보도록 요구하기, 글을 읽고 난 후 글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도록 요구하기, 글을 읽는 동안 글 속에 들어 있는 삽화를 보면서 글의 내용과 관련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등을 들 수 있다.

나. 문장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 추론하기

이 방법은 먼저 학생들에게 추론을 요구하는 짧은 문장 연습을 통해 연습하고, 이를 실제 읽기 교재를 통해 강화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작가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추론해야 한다는 점도 알게 한다.

<추론하기 연습을 위한 짧은 문장의 예>

추론 문장	가정된 정보
♧ 일기 예보를 들은 후에, 우산을 가지고 가기로 결정했다.	♠ 일기 예보의 내용은 비가 온다는 것이었다.
♧ 나는 선생님이 어서 나으시기를 바라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 나는 선생님을 좋아하고 있으며, 그 선생님이 아프시다.
♧ 미국으로 이민간 친구로부터 답장을 받았다.	♠ 친구에게 먼저 답장을 보냈었다.

위의 활동이 끝나면 4~8개의 문단으로 된 짧은 글을 준비하고 각 글마다 글 속에서 추리하여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7~8개 정도 만든 후 학생들에게 답을 찾아보게 한다. 학생들이 주어진 예문을 읽고 답을 쓰면 교사는 활동을 점검하며 학생들에게 보충 설명을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읽기 부진학생들은 궁극적으로 글을 읽으면서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방법과 태도를 익히게 될 것이다.

다. 뒤에 이어질 내용 추론하기

뒤에 이어질 내용 추론하기는 우선 학생들에게 몇 줄의 문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적어보게 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때는 이어질 내용이 원래 글의 내용과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써 보도록 한다. 이 단계가 끝나면 다음으로 3~4 문단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글에서 마지막 한 문단 정도를 비워 두고 학생들에게 앞의 내용과 관련지어 뒤에 올 내용을 추론하여 쓰게 한다. 이 때 주변의 다른 학생과 서로 상의해서 뒷부분을 이어 쓰게 하는 방법도 좋다. 학생들이 어느 정도 추론하기에 익숙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사건의 전개 순서 인과 관계 등을 파악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하게 하고, 앞 문장의 정보를 충분히 이해한 후 추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서사적인 텍스트인 경우에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에 훨씬 유리할 수 있는데, 원래 있는 이야기에서 결말 부분을 빼고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결말을 맺게 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 문장막대로 글과 경험 잇기

이 방법은 문장막대를 가지고 글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는 활동이다. 여기서 문장막대란 글을 읽고 나서 경험과 관련지어 발표할 수 있도록 일정한 미완성 문장 구조의 보기문을 막대 형식으로 만든 것이다. 글과 나 관련짓기에 유용하며 글과 경험을 관련지을 수 있는 틀을 제시해 준다.

<문장막대의 예>

이 글을 읽으니.....떠오른다. 왜냐 하면.....

이 글의 내용과 관련된 나의 경험은.....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부분을 읽을 때 나는 이 등장인물이 .....

만약 내가 .....이었다면 나는 .....

4. 평가 및 감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학생들의 평가 및 감상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인물의 성격에 대한 내 생각 말하기, 등장인물과 동일시하기, 글 속 인물이 되어 생각하기, 따져보는 질문하기 등이 있다.

가. 인물의 성격에 대한 내 생각 말하기

인물의 성격에 대한 내 생각 말하기는 주인공의 말과 행동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보고, 그 성격을 전체 이야기 속에서 비교해 보게 한다. 우리 교실에 보는 친구,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텔레비전에서 본 사람, 실존했던 인물이나 이야기 속의 인물 등 자기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이름들과 관련지어 보게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여러 인물이 추구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한다.

나. 등장인물과 동일시하기

등장인물과 동일시하기는 내가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 한 명이라면 어떻게 느낄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는 활동이다. 독서 토의는 학생들이 등장인물과 동일시하는 독서 태도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활동에는 등장인물의 일기 쓰기, 한 등장인물로부터 다른 등장인물에게 편지쓰기 같은 이야기를 다른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쓰기 또는 이야기의 부분을 극본으로 쓰기 등이 포함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느낄까요?"와 같은 질문을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독특한 반응을 등장인물의 반응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다. 글 속 인물이 되어 생각하기

글 속 인물이 되어 생각하기는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 중 서로 대립하는 입장에 있는

두 인물을 선택하여 이 인물의 입장에 서서 토론거리가 될 만한 주제를 이야기 속에 뽑아 토론하게 하는 활동이다. 학생들은 이야기 속 인물이 되어 자기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글을 충분히 이해해야 할뿐만 아니라 글에 나타나 있지 않은 글들도 미루어 짐작하여 상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좀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다시 읽고 드러난 사실,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에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야기 속 인물이 되어 할 수 있는 활동에는 글 속 인물이 되어 주장하기, 변론하기, 일기쓰기, 편지쓰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라. 따져보는 질문하기

따져보는 질문하기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진 주체적인 독자의 입장에서 글의 내용이나 구성, 표현을 평가하는 질문을 만들고 그에 답하는 활동이다. 제기하는 질문이 평가하기와 잘 맞물려야 하므로 질문을 만드는 것이 질문에 답하는 것만큼 중요한 활동이 된다. 이것은 주어진 글을 다만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관점으로 내용 구성을 따져보고, 지금까지 학습한 것을 기초로 글의 전개가 자연스러운가, 표현이 적절한가 등 질문을 제기하고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도록 함으로써 좀더 비판적인 읽기로 학습자를 이끌고자 하는 활동이다.

※ 따져보는 질문의 예
- 글쓴이의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나?
- 이어주는 말의 사용이 적절하고 효과적인가?

V. 결론 및 제언

본고는 지금까지의 읽기 교육이 학습자의 수준이나 특성을 찾아내어 그것에 맞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자는 학습자의 읽기 능력을 실제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먼저 학습자의 읽기 과정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중학교 읽기 부진학생과 읽기 우수학생의 읽기 과정을 관찰하고 비교함으로써 같은 연령의 다른 학생들에 비해 읽기 부진학생들이 읽기 과정에서 어떤 곤란을 겪으며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중학교 읽기 부진학생들의 특성은 첫째, 소리내어 읽기에 있어서 유창성이 부족하여 읽는 속도가 느리고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함을 보여주는 오독이 많이 나타난다는 점, 둘째, 어휘 지식이 부족하며 개념 이해의 전략에 대한 인식과 실행 노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셋째, 글의 내용을 확인함에 있어 깊이 있게

분석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이해에 머무르며 글을 꼼꼼하게 읽지 않고 대충 읽고 넘어가는 점, 넷째, 추론에 있어서 글쓴이나 글의 종류, 특성 등에 대한 추론, 그리고 뒤에 이어질 내용 등에 대한 추론은 거의 하지 않으며 한 문장 이상을 넘어서는 연속적인 추론을 하지 않는다는 점, 추론 과정에서 논리성이 부족하고 자신의 배경지식과 글의 내용을 연결짓지 못하여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다는 점, 다섯째, 글 전체에 대한 평가나 감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읽기 부진학생을 위한 개념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도 방안, 내용의 사실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도 방안, 추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도 방안, 평가 및 감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도 방안 등을 탐색하였다.

특별히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읽기 부진학생의 경우 사고력을 길러주는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수업도 필요하지만 그 동안 국어 교육에서 비판을 받아온 자구 해석적이고 분석적인 수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바뀐 교과서에는 읽을거리나 활동거리가 늘어난 반면, 수업 시수는 줄어 현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분석적인 수업이 사라져 가는 추세이다. 이것은 물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읽기 부진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다. 물론 읽기 부진학생의 경우도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고력이 개발되어야 하며 특히 읽기 교육에서는 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고력이 길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어휘 지식이나 기초적인 사실에 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읽기 부진학생에게는 사고력 교육과 함께 세심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지도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다인수 학습이라는 이유로 한 차례 함께 읽고 교과서에 주어진 활동을 하되 개별 지도나 확인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부족한 읽기 부진학생의 경우에는 더욱더 부진의 정도가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여건이라면 읽기 부진학생에 대한 보충 지도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읽기 부진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지도 방법을 다양하게 구안할 필요가 있다. 가령, 다른 학생들에 비해 읽기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나 지도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글을 읽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지, 읽기 부진학생들이 읽기 지도 초기에 즐겁게 읽을 수 있는 텍스트는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가 있어야 읽기 부진학생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외에도 읽기 부진학생의 읽기 능력 발달 과정을 질적으로 연구하는 일도 매우 유용한 작업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광해(1990), "어휘 교육의 방법", 국어생활 22, 국어연구원.

김규선·김일영(2000), "사고 구술(Think-alouds) 형성 평가의 연구", 『논문집』 제35집, 대구교육대학교.

김동일(1999), "국어교육 평가에 대한 메타인식",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정기 학술대회.

김봉순(1992), "읽기 지도 내용의 모색-전략의 개념을 중심으로", 『선청어문』 20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김재춘(2000), 『수준별 교육과정의 이해』, 교육과학사.

김영채(1996), 『사고와 문제해결심리학』, 박영사.

노명완(1994), "읽기의 관련 요인과 읽기 지도", 『국어교육』 85, 8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노명완(1995), "국어교과의 수업 방법", 『국어교육학의 이론화 탐색』, 일지사.

박수자(1995), "독해 전략의 유형과 지도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 89집, 한국 국어교육연구회.

박수자(2001), 『읽기 지도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박영목(1996), 『국어이해론』, 법인문화사.

서 혁(1991), 「단락·문장의 중요도 파악과 단락의 주제문 작성 능력이 요약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 혁(1995), "언어 사용과 추론", 『논문집』 56, 한국국어교육연구회.

손영애(1996), "읽기 영역 지도 내용 체계화 방안", 『국어교육연구』 제3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신헌재·이재승 편저(1994), 『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 서광학술자료사.

심상민(2000),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영택(1999), "사고기술법을 이용한 읽기 포트폴리오 평가의 이론과 실제", 『국어교육학연구』 9, 국어교육학회.

윤희원 외(1995),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탐구』, 교학사.

윤희원 외(1995), 『사고력을 기르는 국어과 교육』, 충남교육청.

이경화(2001), 『읽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이대규(1990), "낱말 수업의 목표와 방법", 『국어교육』 71·72.

이삼형(1996), "인지적 읽기 모델의 비판적 고찰-스키마 이론의 독해관과 읽기 지도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 독서학회 제5회 학술대회 자료집.

이삼형(1998), "언어 사용 교육과 사고력", 『국어교육연구』 제5집,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이삼형 외(2000), 『국어교육학』, 소명출판.
이용남·박분희 역(1993), 『인지심리와 교수 학습』, 교육과학사.
이재승(1997), 『국어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이재승(2000), "작문 부진의 원인과 진단 방법", 『국어교육학연구』, 국어교육학회.
이정모·이재호 편(1998), 『인지심리학의 제문제』(II) : 언어와 인지, 학지사.
장진호(2001). 「사고구술을 통한 읽기 과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천경록·이재승(1997), 『읽기 교육의 이해』, 우리교육.
천경록(1999a), "읽기 장애의 개념과 지도 방향", 『한국어문교육연구』 8,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천경록(1999c), "독서 교육과 독서 평가", 독서 연구 4호, 한국독서학회.
초등국어교육학회(1999), 『읽기 수업 방법』, 박이정.
한철우(1989), "읽기 부진의 상관요인 고찰", 제효이용주박사회갑기념논문집.
황정규 편(2000), 『현대 교육심리학의 쟁점과 전망』, 교육과학사.
Crain-Thoreson, C., Lippman, M.Z. & McClendon-Magnunson. D. (1997), "Windows on Comprehension: Reading Comprehension Processes as Revealed by Two Think-Aloud Procedures",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89(4), pp. 579~591.
Ellen D. Gagne(1985), The Cognitive Psychology of School Learning, 이용남·박분희 회 공역, 『인지심리와 교수-학습』, 교육과학사.
Irwin · Baker(1989) , Promoting Active Reading Comprehension Strategies, 한철우, 천경록 역, 『독서지도방법』, 교학사(2000).
Moffett. J(1991), "Current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The English Language Arts,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Irwin. J. W.(1996), Teaching Reading Comprehension Processes, (2ed)』, 천경록, 이경화 옮김(2003), 박이정출판사.

<Abstract>

A Study on the Features of Reading Underachievers and Instructional Methods

Kim You Mi*

This study is aimed to clarify the features of reading process of reading disability students which I believe help find a teaching scheme adequate to middle school students with reading underachievement.

The analysis of product of students' reading operation shows the difference between lower level students and higher level students is very large. To solve this problem of reading underachievers, we should make a diagnosis of what problems they have in reading process and in what point they are weak. On this ground, I extracted the features of reading underachievers in reading process through the thinking aloud method.

I got following features of middle school reading underachievers through this study. First, the speed is low in reading aloud owing to the lack of fluency, and misreadings appear frequently, which show reading underachievers misunderstand the contents. Second, they lack lexical competences, strategy of conceptualization, and comprehension of various usage of a word. Third, they can't analyze the contents deeply because they mostly ask superficial questions to understand the contents, and they often leave out some parts they should read. Forth, they rarely infer writers, genre, characteristics, and succeeding contents. Furthermore, they can't make consecutive inference from sentences and as a result of lack of logic and ability to connect their background knowledges with the contents they misunderstand the contents. Fifth, they can rarely give evaluation or appreciation of an article as a whole and their appreciations of a part of an article are low-grade.

On these grounds, I asserted that reading aloud can be an useful method of evaluating the reading ability of students at middle school level. Furthermore, I proposed methods to improve conceptualizing, decoding, inference, evaluating, and

* Seoul National University Girls' Middle School

appreciating ability.

Key Word : reading ability, reading process, reading underachiever, thinking aloud, reading aloud, misreading, conceptualization, decoding, inference, evaluation, appreciation, lexical competence.